

김영록 지사 ‘해남군 스마트도시’ 비전 제시

해남군 도민과 대화에서 지역발전 구상 발표
2026년 기후변화 대응 컨트롤타워 해남 조성

김영록 전남지사가 13일 해남군 도민과의 대화에서 해남을 전남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스마트도시’로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오후 해남 우슬체육관에서 열린 도민과의 대화에는 김영록 지사와 명현관 해남군수, 전남도의회 김성일·박성재 의원, 김석순 해남군의회 의장, 군민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김 지사는 해남을 스마트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 비전을 제시했다.

전남도와 해남군은 오는 2025년까지 김치 원료 공급단지를 해남에 조성하고, 이듬해인 2026년까지 대한민국의 농업 분야 기후변화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를 해남에 조성할 방침이다.

2025년까지 해남 화원산단에 해상풍력 배후단지를 조성해 국내 최대 해상풍력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하고, 솔라시도를 첨단 생태·에너지·관광레저 거점 도시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도민과의 대화에서 해남군과 군민들의 지원 요청도 잇따랐다.

해남군은 금강산 일대 명품숲길 조성을 위해 도비 5억원 지원을 건의했다. 금강산 명품둘레길 조성사업은 체험·체류형 관광을 위해 이미 조성된 임도 30구간에 트레킹 테마 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천승남 현산면 체육회장은 집중호우 시 매년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조산천 재해복구 사업 지원을 요청했으며, 김종호 해남문화원장은 2025년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개최지로 해남을 선정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금강산 둘레길에 트레킹 테마 공간 등이 추가 조성되면 지역민에게 양질의 건강휴양 코스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며 “도비 지원을 통해 조속히 명품둘레길이 조성되도록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해예방이 시급한 구간은 군과 협의해 재난안전특교세 지원사업 등으로 추진되도록 검토하겠다”며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개최는 전시시설 등 여건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2025년 개최계획 수립 시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 비엔날레운영위에서 해남 개최가 논의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해남군은 살맛 나는 으뜸 해남 건설을 위해 땀과 열정이 달려 가고 있다”며 “현재도 군민과의 약속 행정을 최우선으로 삼아 군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호 기자

김대중센터서 국제광융합전시회 열린다
15~16일, 150여 기업·기관 참여...16개국 해외바이어 초청

광주시는 국내 최대 광융합산업 전시회인 국제광융합산업전시회(포토닉스 코리아 2023)를 오는 15~16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광주시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가 주관하는 이번 전시회는 올해로 21회째를 맞았다. 2001년 국제 광산업 전시회로 시작한 국제광융합산업 전시회는 명실상부한 국내 최대 광융합산업 전문전시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는 광융합산업의 중심도시 광주에서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인 광기술이 반도체·인공지능(AI)·에너지·미래형자동차 및 광의료바이오 등 다양한 산업분야는 물론 일상에 적용되는 광융합

산업 신기술과 신제품을 한눈에 볼 수 있다.

LG이노텍·트로닉스·옵토닉스·에스엔엠메디컬 등 광융합산업 관련 기업을 비롯해 한국광기술원·한국광학회·키엘연구원(한국조명ICT연구원)·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광주테크노파크·한국생산기술연구원·한국전자기술연구원·광주그린카친환경·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등 국내 광융합산업 관련 150여 기업과 기관이 250여개 부스를 설치한다.

전 세계 16개국 100여 명의 바이어를 초청, 수출 상담회도 갖는다. 광주시는 200여 건의 수출 상담을 통해 700억 원 규모의 수출 상담과 360억 원의 수출 계약을 기대하고 있다.

/조일상 기자

광주시, 인플루엔자 유행
“예방접종 서두르세요”

광주시는 최근 인플루엔자가 급속히 확산하자 시민들에게 서둘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참여하고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10월 5주차(10월 29일~11월 4일) 기준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은 30.0명으로 전주대비 약 170% 증가했으며, 이는 2023~2024절기 인플루엔자 유행기준 6.5명의 4.6배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의사환자분율을 보면 7~12세 95.2명, 13~18세 66.9명에 달하는 등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44주 연도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은 ▲2018년 2.7명 ▲2019년 5.7명 ▲2020년 0.9명 ▲2021년 0.7명 ▲2022년 15.2명 ▲2023년 30.0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광주시는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해 지난 9월 20일부터 생후 6개월에서 13세 이하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50~64세 장애인·의료급여수급권자·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정영화 복지건강국장장은 “인플루엔자 감염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 위생과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단체생활을 하는 학령기 아동을 중심으로 인플루엔자가 유행하고 있으니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전남 건강버스 13일 전남도청 광장에서 전남 건강버스 발차식'이 열린 가운데 김영록 지사 등이 축하행사를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세계로 뻗어가는 K-김치’ 광주 5·18광장서 대규모 김장축제

‘김장문화’ 유네스코 등재 10년 되는 해

‘김치의 날’인 22일 광주 금남로 5·18민주광장에서 시민 단체 등 1000여 명이 참여한 대규모 김장축제가 열린다.

광주문화방송(광주MBC)은 오는 22일 오전 10시부터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2023 대한민국 김치대전’을 연다고 13일 밝혔다.

광주문화방송은 K-푸드 열풍 속 광주·전남 지역의 김치와 김장 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이 같은 축제를 마련했다.

특히 올해는 김장문화가 유네스코에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에 등재된 지 10년째 되는 해이기도 해 축제의 의미를 더하고 있다.

당일 행사가 열리는 11월 22일에 맞춰 시민과 학생, 오월어머니회, 고려인마을, A페퍼스배구단 선수, 아르헨티나 대사 등 기업과 단체·대학 관계자 등 1122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당일 직접 담근 김치 1만 포기를 지역 소외계층에 전달할 방침이다.

또 제30회 광주 김치축제에서 역대 대통령상을 받은 명인이 직접 참여, 김치 담그기 시연도 벌인다.

이 행사에서는 낙지새우전복 해산물을 넣은 박혜란 명인의 ‘복분자호소수삼백보쌈김치’, 맨드라미를 우려 백김치 국물을 내는 곽은주 명인의 ‘맨드라미백김치’, 소금에 절인 계살을 양념에 넣어 배추와 무에 버무리는 김호옥 명인의 ‘비늘김치’ 등이 소개된다.

송가인 트로트 가수와 지난 2021년 ‘미스트롯2’ 4위에 오른 김태연의 축하 공연도 마련된다.

/권형안 기자

광주, 창업기업 혁신 제품 실증 무대 변모

시청사 1층 인공지능 기반 ‘스트레스 사위실’ 체험 인기 높아

창업성공률이 높은 기회도시 광주가 창업기업의 혁신기술 제품을 실증하는 무대로 변모하고 있다.

13일 광주시에서 따르면 올해 처음으로 열린 창업제품 실증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10개 창업기업 혁신기술제품을 포함, 17개 기업의 제품이 실증을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기업연구기관 등과 함께 국비 확보를 통한 24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들 기업의 제품은 지하차도 침수 모니터링 시스템부터 인공지능(AI)정보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버스 도착안내, 스마트밴드 기반 홀몸노인 돌봄시스템까지 다양하다.

광주시는 혁신기술 실증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시험무대(테스트베드) 광주를 구축하고, 도시문제 해결에 실증을 접목해 시민이 체감하는 실증도시를 구현할 계획이다.

실제 창업기업의 혁신기술 제품 실증을 위해 동명동 카페거리·쌍암재·농수산물도매시장·광주송정역·문화전당역 등 도시 곳곳을 실험무대로 제공하고 있다. 또 시청사 ‘스트레스 사위실’ 이외에도 북구청 인근에서는 스마트 가로등 시스템을 실증하고 있다.

/조일상 기자

“순천대 지역소멸 막을 글로벌대학” 환영

김영록 지사·서동욱 의장 환영...거점대학 육성

국립순천대학교가 지역소멸을 막고 지역발전을 견인할 정부 글로벌대학에 지정되자 13일 김영록 지사와 서동욱 전남도의회 의장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도청 브리핑룸에서 이병은 순천대 총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순천대학교의 글로벌대학 본지정을 환영하며 순천대를 지역 발전의 허브 역할을 하는 거점대학으로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200만 전남도민 모두

가 이뤄낸 쾌거”라며 “앞으로 순천대가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서동욱 전남도의회 의장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인구 소멸의 시대, 대학과 지역의 상생 협력으로 혁신발전을 도모할 새로운 길이 열렸다”고 환영했다. 서 의장은 “글로벌대학 선정은 지방대학과 지자체 지역산업이 파트너십을 구축하며 중장기적인 혁신전략을 추진하는 기회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광고문의 : 062-363-8800

신문광고 매체 모든 것

호남매일에 맡겨주십시오

전화 한통화로 광고효과를 확인하세요

공고광고	대리점모집 및 사원모집광고, 사무실 이전광고, 결산공고, 분실광고, 정부 및 관공서 광고 등
준공고광고	영업(PR)광고와 공고광고가 혼합된 광고
부동산광고	부동산 관련광고와 분양 영업광고 일반적 상품광고, 기업PR 광고, 세일광고 등
정치 및 긴급성 광고	성명서, 호소문, 해명서 등 긴급을 요하는 광고와 정치단체(정당)에서 하는 정치광고
안내광고	구인, 구직, 부동산 임대나 매입, 중고품 판매, 결혼상담 등 각종 생활정보 광고

광고접수 : 062-363-8800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6

FAX:062-362-0078

이메일:honamnews@hanmail.net